

나주시, 600억대 빛가람혁신도시 소송전 최종 승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개발3사 상고 기각
“구 혁신도시법 근거 부과대상”

5년간 이어진 행정소송 마침표

전남 나주시가 600억원 대에 달하는 빛가람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나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개발 시행 3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대법원은 시행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들은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한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고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항공사진.

판시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지속해 온 시행 3사와의 기나긴 행정소송에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또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혁신도시와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소송까지 간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

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의 만연, 개발 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행 3사에 토지공개념에 따라 2016년 732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

다고 맞서며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주시에 부과 제외대상 사업인 임대아파트와 이주자 택지에 부과한 31억원 만 반환하라고 재결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지만 나주시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전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시행 3사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해 나주시와 국토교통부가 41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시행 3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시행 3사는 2019년 7월 원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소송은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추풍령 생태통로

경북도 낙동정맥 생태복원 추진

경북도가 도로 개설로 단절된 낙동정맥 이리제 구간(포항시 기계면 봉계리)을 연결해 자연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낙동정맥 복원 사업은 내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생태통로 설치공사에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로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의 산줄기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원해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전남도, 13兆 바이오시장 진출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
신약 개발기간 최소 3~4년 단축

전라남도는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 13조원 규모의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바이오의약 분야 블루오션 시장인 암, 치매 등 희귀난치 질환의 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포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최소 3~4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 개발을 선점해 세포치료제 글로벌 허브를 만들



전남도청 전경

다는 전남도의 장기 플랜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암,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첨단 의약품이다. 세포치료제 세계시장은 오는 2025년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40%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세포치료분야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포치료 기반 차세대 신약 소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재해예방사업에 1200억 투입

2024년까지 침수·낙석 위험지 관리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600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부산시내 침수 및 낙석 위험지 5곳에 총 1200억원을 들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동구 자성대아파트 인근, 사상구 부산새벽시장, 수영구 수영교차로, 해운대구 선수촌아파트 등 침수 위험지 4곳과 낙석 위험지인 영도 구 현여마을 1곳이다.

이들 5개 지역에 대한 설계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부산시

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에 돌입해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부산시의 재해예방사업 국비확보액은 2018년 62억원에서 지난해 263억원, 올해는 250억원이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재해예방사업에는 최근 동천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본 자성대 아파트 인근을 비롯해 상습침수구역, 낙석 위험지가 포함됐다”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지역사회 “코로나·재해극복에 힘을”

손세정제·마스크·성금 등 기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에게 힘을 주는 지역사회의 온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8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나눔을 실천한 재이다, 광주시약사회, 광주순환도로·광주순환과 기탁식을 열었다.

광주 북구 소재의 소독제 제조회사(주)재이다는 살균소독수 800l와 손세정제 1500개 등 생활방역용품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재이다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업지원센터 졸업기업 및 기술이전 연구전문기업으로 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기부금 기탁식

광주시약사회는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과 방역 활동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1만5000장과 성금 3052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자와 광주순환은 지역의 재난 구호활동을 위해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에 전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

광주광역시 8일 국산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물차를 추가 보급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의 25%가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도로 이동오염원의 62%가 화물차인 만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8일 밝혔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물량은 40대로,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경북교육청 전국영농학생축제 취소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개최하려던 제49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0 FFK경북대회)를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영농학생축제는 농업계고 학생진로 개발 등을 위해 해마다 14개 시·도별로 돌아가며 여는 행사다.

올해는 행사를 대폭 축소해 안동 한국생명과학고와 김천생명과학고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도교육청, 한국농업교육협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협의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세영레저산업, 레저시설 건립 맞손

1500억 규모 투자양해각서 체결

세영레저산업이 경북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레저시설 건립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한다.

안동시는 8일 세영레저산업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영레저산업은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4만9422㎡에 2023년까지 워터파크, 콘도시설, 실내외 휴양형 시설 등을 건립한다.

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갖가지 행정·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단지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 시가 추진하는 관광 거점도시 육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